

第6編 풍속(風俗)・전설(傳說)



龍尾里石佛立像

第1章 풍속(風俗)

민간의 풍속에 대하여는 파주에서는 파주 특유의 풍속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것은 서울이 가깝다 보니 자연히 특유의 풍속이 성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4월 초파일 석가탄일에 밤등불을 구경하기 위하여 남산(南山)에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하는데 여기에는 근교(近郊)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자기 고장에서 연등회가 성행될 이유가 없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군의 민속에 대하여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기준하여 문로(文老)들의 말을 참작하면서 기술할까 한다. 본서(本書)는 조선조의 정조, 순조 때 사람 홍 석모(洪錫謨)가 1849년 저술한 것으로 본군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참조하기로 한다.

1. 정월 초하루(正月元旦)

각 집에서 집안끼리 모여서 간단히 선조에게 다례(茶禮)를 올린다. 어린이 들은 새 옷을 입고 집안 어른들을 찾아 뵙고 세배를 한다. 이때 대접하는 음식은 세찬(歲饌)이라 하고 술은 세주(歲酒)라 한다. 또 떡국을 먹는데 이 떡국은 제사에도 쓰이고 손님 접대에 사용되므로 속담에 나이를 ‘떡국 몇 그릇째 먹었느냐’고 한다. 또 시루떡(飴餅)을 만들어 신에게 빌기도 하는데 쓰인다.

연소한 친구를 만나면 ‘올해는 과거에 합격하시오’ ‘부디 승진하시오.’ ‘생남(生男)하시오’ ‘돈을 많이 버시오’ 등의 말을 한다. 이것을 덕담(德談)이라 한다.

꼭두새벽에 거리로 나아가 어떤 방향에서 들려오든지 관제할 것 없이 첫번 들려 오는 소리로 일년간의 길흉(吉凶)을 점친다. 이를 청참(聽讖)이라 한다. 또 남녀가 1년 동안 빗질하여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두었다가 반드시 설날 황혼이 오기를 기다려 밖에서 태워 앞으로 나쁜 병을 물리친다.

속담에 야광(夜光)이란 귀신이 있다. 이 귀신이 이날 밤 인가에 내려와서 두루 아이들의 신을 신어 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가버린다. 신을 잃은 주인은 불길하다 하여 아이들의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그리고 체를 마루 벽이나 뜰에다 걸어 두고 잔다. 야광이 와서 이 체구멍을 세느라 아이들의 신을 훔칠 생각을 잊고 있다가 닭이 울면 도망가 버린다고 한다.

2. 입춘(立春)

이날은 대궐 안에서는 춘첩자(春帖子)를 붙이고 민간에서는 춘련(春聯)을 붙이는데 이것을

춘축(春祝)이라 한다. 춘축에는 다음과 같은 연귀(聯句)가 많았다.

壽如山 富如海 去千災 來百福	災從春雪消 福逐夏雲興
立春大吉 建陽多慶	天上三陽近 人間五福來
堯之日月 舜之乾坤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	鳳鳴南山月 麟遊北嶽風
天下太平春 四方無一事	門迎春夏秋冬福 戶納東西南北財
國有風雲慶 家無桂玉愁	天增歲月人增壽 春滿乾坤福滿家

단구(單句)로 된 첩자(單帖)

春到門前增富貴	一春和氣滿門楣
春光先到吉人家	一振高名滿帝都
上有好鳥相和鳴	

3. 인일(人日)

국가에서는 작고 등근 거울(銅人勝)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과거를 실시한다. (人日制) 그 외에 명일(名日)의 과거는(節日制)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에도 시행한다.

4. 돼지, 쥐, 토끼, 뱀의 날(亥, 子, 卯, 巳日)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서 ‘쥐 주둥이 지진다. 쥐주둥이지진다’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데 이는 풍년을 비는 뜻이다.

토끼날에는 새로 뽑아낸 실(兎絲)을 주머니 끝에 달아 매어 재앙을 물리친다. 남의 식구와 나무로 만든 그릇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자가 먼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또 이 날은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뱀날은 이발을 하지 않고 뱀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5. 보름날(上元日)

이 날은 약밥(藥飯)을 먹는다. 약밥은 신라 때 소지왕(炤智王) 10년 정월 15일 왕이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하였을 때 날아온 가마귀가 왕을 일깨워 주었던 고사(古事)에 의하여 이 날을 가마귀에게 사은하는 뜻에서 약밥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시절 음식으로 되었다.

보름 전날 14일에 짚을 묶어 깃대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 벼, 피, 기장, 조 등의 이삭을 넣어 쌓고 묵화를 그 장대 위에 매단다. 이것을 집 곁에 세우고 새끼를 늘어뜨려 놓는데 이것을 화적(禾積)이라 하는데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다.

남녀의 나이가 나후직성(羅睺直星—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해의 운수를 맡아 본다는 아홉 직성 중의 하나, 9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남자는 10세, 여자는 11세이다)에 들면 추령(鉤靈—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나후직성이 든 사람의 옷을 입히고 그 안에 돈을 넣고 성명, 생년월일을 적어서 14일 저녁에 길에 버린다)을 만드는데 이것을 처용(處容)이라 한다. 아이들은 문밖으로 나와서 처용을 내어 달라고 하여 그것을 얻으면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길에다 버린다. 이것은 타추희(打鞦韆)라 하였다. 처용의 명칭은 신라의 헌강왕(憲康王) 때 동해 용왕의 아들 이름에서 나왔다 한다. 이 풍습은 아직도 민속으로 전하고 있다.

나이가 해와 달의 직성(直星)을 만난 사람은 종이로 해와 달의 모양을 오려 나무에 끼워 지붕의 용마루에 꽂는다. 또 달이 뜰 때 햇불에 불을 붙여 달맞이를 하기도 하고 또 물의 직성을 만난 사람은 종이에다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 속에 넣기도 한다. 이런 것은 액운을 빼우는 것이라 하였다. 풍속에 나후직성(제웅 직성)을 가장 꺼려 어린이들은 겨울부터 나무로 만든 호로(胡蘆) 세개를 차고 다닌다. 그 빛깔이 청, 홍, 황색으로 마치 깍지콩 모양 같다. 이것을 채색실로 끈을 만들어 차고 다니다가 14일날 밤중에 남몰래 길에다 버리면 액을 막는다고 하였다.

이른 새벽에 밤, 호두, 은행, 땅콩, 무우 등을 깨물며 “일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중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 달라”하고 축원한다. 이를 작절(嚼癰)이라 한다.

또 청주(淸酒)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릉주(牖壘酒—귀밝이 술)라 한다.

또 외꼭지, 가지고지, 시래기, 산나물 등 모두 말려 두었다가 삶아서 먹는다. 이것은 더위를 막기 위함이다.

또, 김으로 밥을 싸서 먹는데 이를 복과(福裹—복쌈)라 하였다.

또, 오폭 밥을 지어 먹고 이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을 보면 급히 부른다.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한다. 이것을 매서(賣暑—더위 팔기)라 한다. 이렇게 하여 더위를 팔면 그 해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백방으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학(謔)이라 하여 더위를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또 대답을 해서 “내 더위 사 가라”하면 “니 더위 내 더위 맞 더위”라 소리치면 서로 상쇄된다 하였다.

이 날은 개에게는 밥을 먹이지 아니한다. 개에게 밥을 먹이면 여름에 파리가 많이 피고 마르기 때문이다. 속담에 “개 보름쇠듯 한다.” 하는 말이 있다. 과수나무의 가지친 곳에 돌을 끼워 두는데 이것을 가수(稼樹)라 하여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라 한다.

아이들이, 아무개 무슨 생·몸의 액을 없애버린다(家口某生身危消滅) 하는 글을 쓴 연을 하루 종일 띄우고 놀다가 해질 무렵에 연줄을 끊어 버린다. 연은 최영 장군이 제주도(耽羅)를 공격할 때 사용하였다 한다. 지금도 연 놀이를 할 때는 연 줄을 아교로 문지르고 자말(磁末—돌가루), 동설(銅屑—구리가루), 사금파리 등을 발라서 치자 물을 노랗게 들이고 남의

연 줄과 엇갈리게 하여 연 줄을 끊는 놀이를 한다. 보름이 지나면 중지하였다.

또 아이들은 회회아(回回兒—팔랑개비)와 고고매(姑姑妹) 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모두 몽고 말이다. 팔랑개비는 오색 종이에 풀칠하여 얇팍한 댓가지의 양쪽에 붙인다. 그리고 크기나 모양이 일정치 않은 자루 끝에 그 댓가지의 가운데를 뚫고 못을 박아 잘 돌아 가도록 만들고 이것을 바람 부는 방향으로 거슬러 달리면 그것이 팽팽 돈다. 고고매는 생명주실에 거위의 솜털을 붙들어 매어 아이들이 실의 한쪽 끝을 잡고 바람을 따라 달린다.

땅을 파서 구멍을 만들고 어른과 아이들이 편을 갈라 돈을 그 속에 넣어 채운다. 그리고 큰 동전으로 그 구멍 안에 있는 내기 물건을 맞춘다. 맞히면 구멍에 들어 있는 돈을 가진다. 만일 잘못 맞히거나 맞히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보름날에 이 놀이가 더욱 성하였다. 아이들은 사금파리를 돈 대신 던지기도 하였다.

초저녁에 햇불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 달을 맞이하는 것을 영월(迎月, 望月—달맞이)이라 한다.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길하다. 그리고 달빛을 보고 점을 친다. 달빛이 붉으면 가물 징조이고 회면 장마가 질 징조이고 달이 뜰 때 달의 모양, 대소(大小), 출렁거림, 고저(高低) 등으로 점을 친다. 또 달의 윤곽과 사방의 두껍고 얇음에 따라 일년 농사를 점친다. 달의 사방이 두꺼우면 풍년이 들 징조이고 얇으면 흉년이 들 징조이며 조금도 차이가 없으면 평년작이 된다 하였다.

답교(踏橋)는 보름날 밤에 남녀 노소가 나와서 자기의 나이대로 다리를 밟는데 나이 수대로 다리 위를 왔다갔다 하다가 다리 저편에서 나이 수대로 끝나면 돌아올 때는 다시는 다리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건너서 돌아온다. 이것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풍속으로 모든 병을 물리친다는 뜻에서 성행되어 장안에서는 폐단도 있고 해서 금지시켰다.

또 석전(石戰)의 풍습도 있었다. 석전은 양편에서 편을 갈라 돌, 몽둥이 등을 던지는데 패주하는 편이 지는 것이다.

밤중에 한 자가 넘는 나무를 뜯 가운데 세워 놓고 달빛이 자정이 되면 그 나무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 그림자 길이가 여덟 치면 대풍(大豊)이 들고 일곱치에서 여섯치가 되면 모두 길하고 다섯 치가 되면 불길하고 네치가 되면 수해와 해충이 심하며 세치가 되면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고 한다.

재를 주밭에 담아서 지붕 위에 얹어 놓으면 어떤 곡식의 씨가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아침에 그 곡식을 보면 그 곡식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새벽에 닭이 첫번 우는 소리를 기다려 그 우는 횟수를 센다. 그 소리가 열번 이상이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콩 열두 개에다 열두 달의 표시를 하여 수수깡 속에 넣고 묶어서 우물에 넣어(月滋—달불이) 이튿날인 보름날 새벽에 꺼내어 보면 그 콩알이 분고 안 분는데 따라 길흉을 가린다. 또 동네 안의 호수대로 콩을 골라 각 콩마다 호주의 성명을 표시하여 짚으로 묶어서 우물에 넣고(戶滋) 다음 날 꺼내어 징험해 보면 불은 콩 주인에게는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6. 2월 초하루

정월 보름날 세워 두었던 화간(禾竿)에서 벼이삭을 내려다가 송편을 만들어 종들에게 그의 나이 수대로 먹인다. 이것은 이 때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종이를 잘라 『향랑각씨(香娘閣氏—노내기)여 속히 천리 밖으로 도망가라(香娘閣氏速去千里)』하는 문구를 써서 서까래에 붙인다.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을 영등신(靈登神—영등 할머니)이라 한다.

7. 3월 3일(3月 삼짇날)

진달래 꽃을 따다가 찹쌀 가루에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花煎—꽃전)이라 한다. 또 녹두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국에 띄우고 꿀을 섞고 잣을 곁들인 것을 화면(花麵)이라 한다. 혹은 진달래 꽃을 녹두 가루에 반죽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 녹두로 국수를 만들기도 한다. 또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 붉은 색물을 들이기도 한다. 이것을 죽물에 띄우면 수면(水麵)이라 한다. 이것들은 시절음식으로 제사에 쓰인다.

8. 한식(寒食)

이 날은 조상의 묘소에 성묘(省墓)한다. 특히 도시에서는 옛부터 성행되었다. 이 날을 냉절(冷節)이라 불렀는데 이는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것을 마음아파하고 불을 금하는 유속(遺俗)이다. 지금의 설날. 단오, 추석, 동지와 더불어 다섯 절사(節祀)로 되어 있다.

이 달에 녹두포(청포묵)를 만들어 잘게 썰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고 초장을 쳐서 매우 서늘한 봄날 저녁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을 탕평채(蕩平菜—묵청포)라 한다. 계란을 깨뜨려 끓는 물에 넣어 반쯤 익혀서 초장을 친 것을 수란(水卵)이라 한다. 조개와 조기로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위어(웅어)를 잡아서 회로 만들어 먹는다. 복사꽃이 떨어지기 전에 하돈(河豚—복)에 파란 미나리와 기름을 쳐서 국을 끓여서 먹으면 맛이 진미이다.

아가씨들이 푸른 풀을 한 줌 따다가 머리채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것을 붙인 다음 붉은 치마를 입힌 것을 각씨(閣氏)라 한다. 이부자리와 머리 병풍을 쳐 놓고 회롱하는 것을 각씨 놀음이라 한다. 아이들이 벼들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든다. 이것을 유생(柳笙—호드기)이라 한다.

9. 4월 8일

8일은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신일이다. 우리 나라 풍속으로 이 날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이라고 하였다. 8일 되기 며칠 전부터 민가(民家)에서는 자기 등대를 세우고 위에 평의 꼬리를 장식하고 채색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단다. 작은 집에서는 깃대 꼭대기에 대

개 노송을 붙들어 맨다. 그리고 집집마다 집안의 자녀들의 수대로 등을 매달고 그 밝은 것을 길하게 여겼다. 9일에 가서 그쳤다. 사치를 부리는 집에서는 큰 대나무 수십 개를 이어 매고 강의 뚝대를 실어다가 받침대를 만들어 놓는다. 혹 일월권(日月圈—장대 끝에 돌게 만든 장치)를 꿰어 바람에 돌게 한다. 혹은 회전등을 달아 빙빙도는 것이 마치 연달아 나아가는 총알같이 보이게 한다.

혹 종이로 화약을 싸서 줄이나 나무에 매어 위로 솟구치게 하면 불길의 아래로 쏟아지는 것이 마치 불 비가 오는듯 하다. 혹은 종이쪽을 수십 발이 되게 이어 붙여 바람에 펄펄 날리게 하면 마치 용의 모양과 같다. 혹은 광주리나 허수아비를 매어 달기도 한다. 고려 때는 정월 보름에 하던 것을 최이(崔怡)가 4월 8일 옮겼다 한다. 시골 노인들은 서울의 연등놀이를 구경하러 남산 잠두봉(蠶頭峯)에 올라 구경하였다.

이 달의 음식은 생선을 잘게 썰어 익혀 외나물, 국화 잎, 파, 썩, 석이버섯, 익힌 전복, 계란 등을 섞어 어채(魚茶)를 만들어 먹는다. 또 생선을 두껍고 넓게 잘라 조각을 만들어 그것으로 속을 넣은 고기 만두를 만들어 초장에 찍어 먹는다. 또 삶은 미나리를 섞어 회를 만들어 간장을 얹어 술 안주로 한다. 또 계집아이들과 어린애들이 봉숭아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궂어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

10. 5월 단오(端午)

궁중에서는 부채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단오선(端午扇)이라 하여다.

남녀 어린이들은 창포탕(菖蒲湯)을 만들어 세수를 하고 홍색, 녹색의 새 옷을 입는다. 또 창포의 뿌리를 꺾아 비녀를 만들되 壽(수) 자(字)나 복(福) 자(字)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는다. 이것은 재액(災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 하였다.

단오를 수릿날(戌衣日)이라 하였다. 술의란 우리 나라 말의 수레(車)이다. 이날 쪽잎을 따다 짓이겨 뽕쌀가루 속에 넣고 녹색이 나도록 반죽하여 떡을 만든다.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었기에 수릿날이라 하였다. 쪽잎의 등이 흰 것을 벌에 말려 화융(火絨—부싷깃)을 만드는데 이것을 수리치(戌衣草)라 하였다.

정오에 익모초(益母草)와 회렴(獐蕨—진득찰)을 뜯어다가 약용으로 쓴다.

이 달 초 10일은 태종(太宗)의 제삿날이다. 이 날에는 비가 오는데 태종우(太宗雨)라 하였다. 태종이 돌아갈 때 세종에게 말하기를 “가뭄이 심하여 죽어서 영험이 있다면 반드시 이날 비가 오게 하겠다.”하였는데 과연 이 날은 비가 온다 하였다.

11. 6월 유두(流頭)

6월 15일은 유두날이다. 신라 때 경주 동쪽에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계음(稷飮—액막이 술)을 마셨는데 유두연(流頭宴)이라 하였다.

이 날 농가에서는 송편, 개떡 등을 만들어 논밭에 놓고 고사를 올렸다. 유두에 만드는 별미로는 수단(水團—멥쌀로 둥글게 만든 떡을 꿀물에 담가 넣어 어름에 채워 먹음)과 냉도(冷餉—수단(水團)을 물에 넣지 않고 건단(乾團)으로 한 것)를 만들어 고사에 쓴다. 되 연병(連餅)이라 하여 밀가루를 멧돌질하여 기름에 지지고 속을 싸거나 콩과 깨에 꿀을 섞은 속을 싸서 자기 다른 모양으로 오무려 만든 것도 있다. 또 잎 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오무려 붙이고 채통에 찌서 초장에 찍어 먹는 것도 있다. 또 밀가루로 구슬같이 만들어 유두면(流頭麵)이라 하여 오색 물감을 들여 세 개씩 색실로 꿰어 차고 다니기도 하고, 또 문설주에 걸어 매달아 액땀을 하기도 하였다.

12. 삼복(三伏)

삼복에는 개를 잡아 개장(狗醬)을 끓인다. 개장은 개를 잡아 삶아서 과와 죽순을 넣고 고추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서 먹는다. 이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가 물러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13. 7월 7석(七夕)

이 달에는 옷을 햇볕에 말린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9월 9일에 다시 헤어진다고도 한다.

14. 7월 백중날(百種日)

7월 15일을 백중날이라 한다. 중들이 재를 올리는 날이다. 고려 때 우란분회(盂蘭盆會)는 지금의 재와 같다. 이 날은 망혼일(亡魂日)이라 하여 저녁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을 차려 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위로한다. 또 이 날은 농사도 거의 다 지었으므로 머슴의 날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즐겁게 놀게 한다. 마시고 먹고 또 씨름도 한다.

성현(成俔)의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전해 오는 이 날의 노래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七月入보로매

아으 百種排 하야두고

니를 한대 너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15. 추석(秋夕)

이 날은 우리 나라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로서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과 송편을 만들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도 과일, 떡, 안주를 만들어 제사지낸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하라” 하는 말이 생겼다. 조(曹—兵卒), 예(隸—노예) 용(傭—고용인), 개(丐—거지) 등도 모두 부모 산소에 성묘하는 날이다.

추석은 중추절(仲秋節)이라 하고 또 가배(嘉俳)라 하는데 신라 때 풍습이 전해 온 것이다. 신라 유리왕(儒理王) 때 경주의 6부(部)를 둘로 나누어 왕녀가 각각 한 부를 거느리고 편을 갈라 7월 16일부터 8월 15까지 베를 짜서 보름날 을야(乙夜—二更)를 기하여 성적을 평한다.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16. 9월 9일 중양절(重陽節)

황국(黃菊)을 따다가 국화전을 만든다. 또 이날은 단풍놀이를 가고 사대부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시를 짓는다.

17. 10월 상달

이 달은 추수감사절이다. 집집마다 고사떡을 만들어 고사지내고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떡은 팔을 많이 놓은 시루떡이다. 또 이 달은 김장을 담근다.

18. 11월 동지(冬至)

이 달은 아세(亞歲)라 한다. 이달 동짓날을 기하여 집집마다 팔죽을 쑤어 먹는다. 팔죽은 찹쌀가루로 새알 수제비를 만들어 죽에 타서 제사에도 쓰며 또 팔죽 국물을 문자와 벽에 뿌려 악귀를 제거한다. 악귀는 중국 공공씨(共工氏)의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 역질 귀신이 되었다. 그 아들이 평소애 팔을 두려워 하였으므로 팔죽을 쑤어 물리치는 것이다.

이 날 달력을 아전들이 관원에게 바친다. 단오날은 부채를 관원이 아전에게 주고 동짓날은 달력을 아전이 관원에게 바치는 것이다.

19. 12월 (선달)

납일(臘日).

참새는 늙고 병든 사람에게 이롭다 하여 민가에서 그물을 쳐서 잡는다. 또 참새가, 세 발 자욱 걷는 것을 보면 길하다 하여 뜰에다 왕겨를 퍼고 참새가 모이도록 하여 세 발자욱 걷는 것을 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러나 참새는 걷지 않고 뛰기 때문에 걷는 것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궁중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이 날을 기하여 청심환(淸心丸)과 소합환(蘇合丸)을 제조하여 경향 각지에 배부해 준다. 이 청심환이 중국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하여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사신이 가면 왕공(王公), 귀인(貴人)이 구걸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만들지는 못했다.

제석 하루 전에 전부터 소를 잡지 못하게 하던 금령을 완화하여 폐를 회수하였다가 제석 전날에 내어 줌으로써 소를 맘대로 잡게 하였다.

인가에서는 다락, 마루, 방, 부엌에 모두 등불을 켜놓는데 흰 사기 접시에 실을 여러 겹 꼬

아 십지를 만들어 기름을 부어 밤새도록 키고 또 자지 않는다. 이를 수세(守藏)라 하였다. 이는 경신(庚申)의 유품이다. 경신(庚申) 지키기는 삼경신(三庚申)을 잠자지 않으면 머리가 총명하여진다 하여 모두 시도해보나 3경신을 뜬 눈으로 새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날은 옷날이를 한다. 옷날이는 제야(除夜)와 원단(元旦)에도 실시하는데 꽤를 보아 옷 점도 쳤다. 옷점은 혹 참고가 될까하여 여기에 기록해 둔다. 본포는 옷을 세번 던진다. 옷은 모와 같이 취급한다.

옷 날 이

옷세번	패명	요 사	옷세번	패명	요 사
도도도	乾	아이가 어머니를 만남	결도도	小畜	큰 고기가 물에 들어감
도도개	履	취가 창고에 들어감	결도개	中孚	염천에 부채를 기증함
도도결	同	사람이 밤에 불을 얻음	결도결	家人	새매와 매가 발톱이 없다
도도모	无妄	파리가 봄을 만남	결도모	益	구슬을 강 속에 던짐
도개도	姤	큰 물이 거슬러 흐름	결개도	巽	용의 뿔이 생김
도개개	訟	죄를 지은 가운데 공을 세움	결개개	渙	가난하고 또 천함
도개결	遯	나는 개미가 등에 부딪침	결개결	漸	가난한 선비가 녹을 얻음
도개모	否	금이나 쇠가 불을 만남	결개모	觀	고양이가 쥐를 만남
도결도	夬	학이 날개를 잃음	결결도	需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됨
도결개	兌	주린 자가 밥을 얻음	결결개	節	소가 풀과 콩깍지를 얻음
도결결	革	용이 큰 바다로 들어감	결결결	既濟	나무의 꽃이 열매를 이룸
도결모	隨	거북이 죽은 속으로 들어감	결결모	屯	중이 속세로 귀환함
도모도	大過	나무가 뿌리가 없음	결모도	井	나그네가 집을 생각함
도모개	困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남	결모개	坎	말에 안장과 채찍이 없음
도모결	咸	추운 자가 옷을 얻음	결모결	蹇	행인이 길을 얻음
도모모	萃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음	결모모	比	해가 풀위 이슬을 비침
개도도	大	해가 구름속으로 들어감	모도도	大畜	부모가 아들을 얻음
개도개	癸	장마에 해를 봄	모도개	損	공은 있으나 상이 없음
개도결	離	활이 화살을 잃음	모도결	賁	용이 깊은 연못에 들어감
개도모	噬嗑	새가 날개가 없음	모도모	頤	관수가 문에 다다름
개개도	鼻	약한 말이 짐이 무겁다.	모개도	蠱	어둠속에서 불을 봄
개개개	未濟	학이 하늘에 오름	모개개	蒙	사람에게 손과 팔이 없음
개개결	旋	주린 매가 고기를 얻음	모개결	艮	리가 대인(大人)을 만남
개개모	晉	차에 두 바퀴가 없음	모개모	剝	강궁(角弓)에 활줄이 없음
개결도	大壯	어린애가 젖을 얻음	모결도	泰	깃가에서 바람이 일어남
개결개	歸妹	중병에 약을 얻음	모결개	臨	어린애가 보배를 얻음
개결결	豐	나비가 꽃을 얻음	모결결	明夷	사람을 얻었다가 도로 잃음
개결모	震	활이 살을 얻음	모결모	復	어지럽고 길하지 못하다.
개모도	恒	서먹서먹한 손님에게 절하고봄	모모도	升	살 일이 아득하다.
개모개	解	물고기가 물을 잃음	모모개	師	고기가 낚시를 삼킴
개모결	小過	물위에 무늬가 일어남	모모결	謙	나는 새가 사람을 만남
개모모	豫	용이 뜻대로 얻음	모모모	坤	형이 동생을 만남

第2章 전설(傳說)

본 전설을 수집하는데 각 면을 순회하면서 그 지방의 문로(文老)들과 대화를 통하여 채굴하였다. 각 면에서 상담한 문로는 다음과 같다.

- 적성면 : 경직현(慶直顯), 손광명(孫光明)
- 파평면 : 유한수(柳漢洙), 임성빈(任聖彬), 정운경(鄭雲慶), 이능우(李能雨)
- 천현면 : 황학술
- 광탄면 : 이홍우(李洪雨), 백태현(白泰鉉), 허금옥(許金玉), 박진원(朴鎭元), 이제영(李濟英), 변태섭(邊泰燮)
- 주내면 : 김완기(金完基), 장영창
- 문산읍 : 김철영(金澈榮), 이영실(李永實), 황의겸(黃義謙), 김형구
- 금촌읍 : 송낙용(宋樂鏞), 유영(柳英), 이순성(李舜成), 신영범(愼英範), 최병덕(崔炳德)
- 조리면 : 박승복(朴承復), 이상진(李相鎭), 이규환(李圭煥), 양길환(梁吉煥)
- 교하면 : 윤길중(尹吉重), 유하영
- 탄현면 : 조병호(曹秉鎬), 조만승(曹滿承), 김용규(金容圭), 권오주(權五周), 차화성(車和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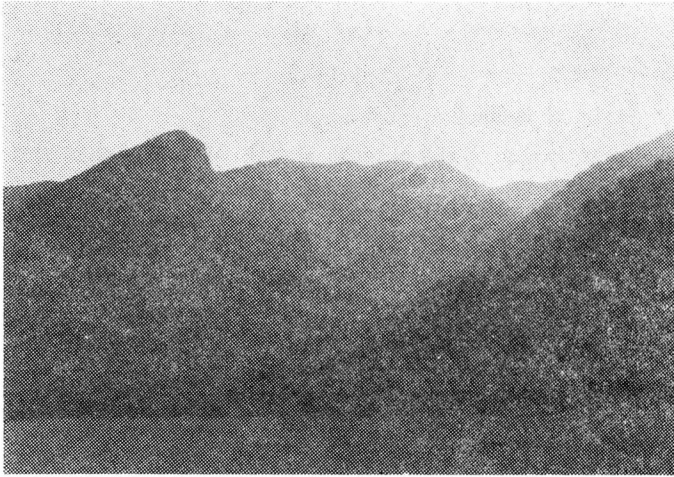
1. 밥 재

지금의 적성면 식현리(食峴里)를 밥재라 하였다. 밥재는 안밥재와 별밥재가 있는데 안밥재는 지금의 식현 1리 탕크 부대 자리이고 별밥재는 그의 입구가 된다. 밥재의 유래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없다.

2. 마지리의 고적지

현 적성면 소재지인 마지리의 하리(下里)는 옛날 원(院)터였다고 한다. 적성 극장 자리 일대에서 원터의 주춧돌이 나온 것을 목격하였다 한다.

또 마지리 시장터에는 옛날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뒤를 소우동(鼻後洞)이라 하였다. 소우동은 소(沼)의 뒤에 있는 골인 뜻인데 소가 된소리로 발음하다 보니 쏘, 쇠, 쇠로 바뀌어 소(沼)가 쇠(鼻)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또 구읍리가 옛 현소재지이므로 자연히 현정(縣政)에 관한 시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새남터, 감옥 등은 좀 떨어진 곳에 두기도 하였다.

마지리 양조장 뒤 골작은 새남터였고 구읍리 현 비행장은 옥담터(옥터)였다.

3. 녑내울

녀 내 울

천현면 웅담리 입구 포수 바위

전너편 산 위 넓은 바위가 있는데 이 곳에서 성삼문(成三問)이 글을 읽고 글씨를 썼다고 한다. 글씨 쓴 먹물이 흘러 앞 냇가 먹물로 물들었다 하여 먹내울, 녑내울이라 하였다 한다. 한자 표기는 [德乃洞]이다.

4. 담 안

적성면 장현리에 장들, 담안 두 부락이 이웃하고 있는데 담안은 담(垣)의 안(內)이라는 뜻으로 개성과 철원이 각각 90리가 되어 꼭 중간 지점이 된다. 궁예가 철원으로 천도하려 할 때 개성에서 왕래하면서 이 담안에 이르러 자고 갔다고 한다.

5. 어유지리(魚遊地里)

적성면 어유지리는 임진강가에 있는 용못(龍池)에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용못은 깊어서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이무기가 살았다고 한다. 따라서 고기(魚)가 노는(遊) 못(池) 즉 어유지(魚遊池)라고 한 것이 지(池)자와 지(地)자가 바뀌어 어유지리(魚遊地里)가 된 것이라 한다.

6. 주월리(舟月里)

적성면 주월리는 본시 “한야리”라 하였는데 어느 임금이 궁녀들을 거느리고 이 곳 강에서 뱃놀이를 하였다. 따라서 주월리(舟月里)란 이름으로 불려왔다 한다.

두지리에 공민왕, 우왕등이 자주 나와서 뱃놀이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왕의 뱃놀이가 있었음직도 한 것이다.

7. 장자못

소재지 : 적성면 장파리 크기 : 약 3,000평

장자못의 전설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장자못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본 군의 장자못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색다른 점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장자못은 고랑포 강 건너 맞은 편 임진강 가에 위치한다. 이 장자못 자리에 송씨(宋氏)라는 부자(長者)가 살았다. 송부자는 부자이면서 인색하여 중이 동량을 와도 시주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중이 시주를 하러 왔다. 송부자는 예와 같이 시주를 거절하면서 “시주할 쌀이 어디 있어, 말뚝도 없다. 말뚝이라도 갖고 싶으면 주겠다.” 라고 하였다. 중은 “그 말뚝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엌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송씨 몰래 쌀 한 말은 퍼서 시주하면서 “시아버지의 행위를 탓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중은 시주를 받아 들고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다. 이윽고 며느리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베를을 이고 나왔다. 중은 며느리에게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 오시오” 하고 고랑포쪽을 향해 임진강가에 이르렀다. 이 때 뒤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는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대로 화석(化石)이 되었다 한다. 그 화석은 베를을 머리에 이고 있는 여인상이다.

후세에 이 전설은 면연히 이어 나가 고랑포 나무터 입구에는 나무로 베를을 머리에 인 여인 조각이 오랜 세월 세워졌다가 그 후 이것이 재봉틀을 머리에 인 여인상으로 바뀌어져서 아래고랑포 정미소 마당에 남아 있다.

장자란 부자를 말한 것이다. 중과 시주, 부자와 중 사이에 옛날부터 시주에 대한 논쟁이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시주를 거절한 인색한 부자에 대한 한 경중으로 전국의 후미진 곳에 있는 곳은 거의가 장자 못이요 또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8. 소개의 궁터

소재지 : 파평면 금파리 박석 고개와 임진강 사이

적성쪽에서 박석 고개를 넘어서면 좌측으로 둥그스름한 골이 나서는 데 여기서부터 임진강 까지가 소개인 것이다. 즉 소개는 우포(牛浦)라 한문 표기를 한다. 소개는 성 혼(成渾) 우계(牛溪)가 태어난 곳으로 우계는 이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소개에서 늘노천을 건너 장파리 구룡의 최하단부와 마주치는 곳을 옛부터 궁터라고 불러 왔다. 궁터는 궁예가 개성에 도읍할 당시 이궁(離宮)으로 건립한 것이라 한다.

파평면장 이 은영씨에 의하면 어렸을 때 성터(土城)가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하며 군기지

로 된 후로 그 자취가 없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마주 바라보이는 박석 고개 중턱에 샘물이 있어 이 궁터에서 식수를 운반하여 먹었다고 한다. 이 샘물을 어수(御水)라 하였다. 이 어수는 수량이 상당히 많아서 1978년 금파리 2리 상수원지로 되었다.

또 이 곳에 석고(石蠱), 마각(馬角), 오백(烏白)의 전설이 있었다. 즉 석고는 돌에 줄먹는다는 뜻이오(石頭蠱), 마각은 말에 뿔이 난다는 뜻이오(馬頭角), 오백은 가마귀 머리가 희게 된다는 뜻이다(烏頭白).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 이 세 가지 유언 비어가 나돌기 시작하였다. 즉 고려가 대궐 주춧돌이 줄먹으면, 말에 뿔이 나면, 가마귀 머리가 희게 되면 망한다는 말이 나돌더니 과연 돌에 줄이 먹고(임진강의 현무암), 말에 뿔이 나고 가마귀 머리가 희게 되어 결국 고려가 망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이 이 소개에서 나왔다 한다.

州北二十里 坡平山下 源出積城 入臨津傍岸有弓裔王行宮遺墟 礎石尙存 有石蠱馬角烏白之傳說
〈坡州郡誌〉

9. 소개 비냥의 장사

소개비냥은 과거에는 절벽으로 되었었고, 그 아래는 수심도 깊었으며 비냥 위로 가파스로 소로 길이 있어 겨우 한 사람지나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이 비냥에 일킨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장단에 김 승경이라는 힘이 세고 활 잘쏘는 한량(閑良)이 살았었다. 또 파주에는 중 출신으로 「쇠」라는 상노와 전 광세라는 중인(中人)이 살았었다.

이 세 사람은 힘이 남달리 세어서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세 사람은 서로 한 번 겨루어 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쇠가 김 승경을 골려 주고자 기회를 노리다가 한번은 주인의 심부름으로 장단 김 승경집에 콩을 실어다 주도록 되었었다. 쇠는 좋은 기회라 속으로 생각하고 장단을 찾아가서 김 승경 집에 이르러 소 등에서 콩섬을 내리는데 김 승경에게 콩섬을 던져서 김 승경을 죽일 마음을 먹었다.

한편 김 승경은 쇠가 항상 자기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충분히 경계를 하면서 대비하고 있었다. 쇠는 콩섬을 소 등에서 내려 김 승경에게 힘껏던지면서 「콩섬 받으시오」 하고 소리쳤다. 김 승경은 사전 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선듯 받아서 땅에 내려 놓았는데, 쇠는 김 승경이 받지 못하고 콩섬에 치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거뜬히 받는 것을 보고 “힘이 나보다 세다” 하고 바로 굴복하고 말았다.

전 광세는 전 광세 대로 김 승경을 엿보고 있었다. 한번은 장단에서 활쏘기 대회가 있어 전 광세도 화살을 메고 장단 땅에 이르러 김 승경과 겨루게 되었다. 그러나 싸움은 전 광세의 패배로 전 광세는 도망을 쳤다. 임진강에 이르니 배는 없고 김 승경은 뒤따르므로 큰 나무를 뽑아서 뿔둥지를 잘라 내고 물에 떠워 강을 건너려 하였다. 이 때 높은 산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소리가 크기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시정하려면 높은 산에서 소리를 치면 50리까지 들리는 그러한 큰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이 사람이 전 광세의 위급함을 보고 전 광세를 구하고자 높은 산 위에서 “전 광세 지금 나간다.”라고 소리쳤다. 뒤따르던 김 승경이 이 소리를 듣고 주춤하는 순간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김 승경을 가지 만라고 만류하였다. 저 목소리가 안들리느냐.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면 힘이 얼마나 세겠느냐? 지금 전 광세와 두 사람이 합세하였다면 결코 승산이 없으니 쫓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 승경이 분에 못이겨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치니 바위가 갈라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김 승경이니 만치 무서울 것이 없어 안하무인으로 파주 장단을 드나들면 행패가 자심하였었다. 하루는 김 승경이 말을 타고 장단에서 고랑포 나루를 건너 소개비냥에 이르렀다. 이 때 파주 쪽에서 한 젊은 초립동이가 역시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때 파주 쪽에서 한 젊은 초립동이가 역시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바로 비냥 위에서 마주쳤다. 그 때 상황은 김 승경이 길 위로 올라서면 한 사람은 비켜설 수 있는 자리였으나 이 초립동이는 전후 좌우 도무지 비킬 도리가 없는 자리였다. 두 사람은 서로 “길을 비켜라” 하고 버티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김 승경이 화를 내면서 젊은이를 발로 걷어차니 젊은이는 말과 함께 벼랑 밑 강물을 향해 떨어져 내려갔다. 그러나 사람과 말이 물에 닿는 순간 이 젊은이는 말을 안고 그 높은 벼랑을 단숨에 뛰어 오르는 것이 아닌가. 김 승경은 놀라서 말을 몰아 힘껏 도망했으나 그 젊은이에게 이내 잡히고 말았다. 젊은이는 “너는 이 팔로 못 쓸 짓을 많이 했지.” 하면서 한쪽 팔을 만지니 그대로 뼈가 부서졌다. 또 한쪽 다리를 만지며 “이제 그만 뛰어라” 하며 만지는 순간 다리 뼈도 부서졌다. 따라서 김 승경은 병신이 되고 그 젊은이는 온데간데 없이 살아졌다고 한다.

그 뒤 김 승경은 아들 셋을 데리고 있는데 이 아들 셋이 모두 불량하여 행패가 심하였다. 김 승경이 하루는 세놈을 불러 놓고 주먹 크기만한 돌을 큰 아들 보고 주워 오라 하였다. 큰 아들이 돌을 주워 오니 김 승경이 앞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는 여기서 거리가 팔한마장 거리가 된다. 여기서 돌을 던져 저 나무를 맞추어 보라”고 하였다.

큰 아들이 힘껏 던졌는데 돌은 나무에 맞아 나무 껍질이 벗어지며 튕겨 나왔다. 둘째 아들도 던졌는데 돌은 겨우 나무 앞에 가서 떨어졌다. 세째 아들이 던지니 돌은 중간 지점에서 떨어졌다. 이번에는 김승경이 그 돌을 주워서 한쪽다리는 절고 한쪽 팔은 쓰지 못하는 병신이면서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던졌다. 돌은 공기를 헤치며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날아가 나무에 닿는 순간 총알처럼 나무에 박히고 말았다. 아들 셋이 입을 벌린 채 놀랐다.

김 승경은 조용히 말하였다. “내 아들이 들어라. 내가 비록 병신이지만 너희 셋의 힘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너의 힘의 열배도 더 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가 소개비냥에서 젊은이가 한번 만지는데로 팔과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한다. 병신된 애비의 힘만도 못한 너희들이 감히 어디라고 힘자랑을

하며 행패를 부리느냐, 이러다가는 너희들도 애비와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니 명심하라”하였다. 아들 셋은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고 그 후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다 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 탄현면 대동리에 거주하는 전씨들의 5대조쯤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화 비슷한 전설인 것이다. 소개비냥의 전설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겨 주는 전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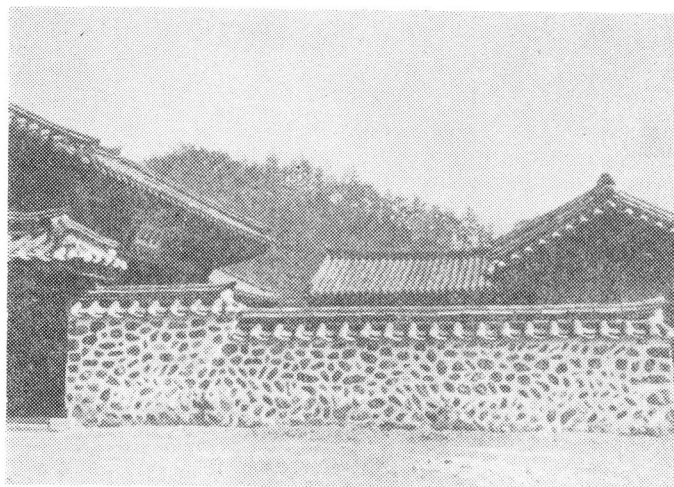
지금 대동리에 전 찬욱씨가 살고 있는데 전 광세는 바로 전 찬욱씨의 조부이다. 전 광세는 이곳에서는 전 봉삼이라 하였는데 이름이 돌이었다. 전 광세는 키가 크고 얼굴이 길고 구레나루 수염이 덩수룩하여 한번 보면 무서운 상이었다고 한다. 전 광세가 큰 돌을 쪼개 결쌍을 만들어 짚어지고 온 것을 그의 아들 삼형제가 힘을 모아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장례식에는 태풍이 강하게 불어서 사람이 날릴 지경이었다고 하며 현재도 전씨들은 장사가 많다고 한다.

10. 장파리(長坡里)

장파리는 본래 장마루 긴 등이라 하였다. 즉 장마루는 긴 마루, 긴 등은 긴 능선으로 결국 긴 마루라는 뜻이 이중으로 된 이름이다. 장마루와 긴 등은 같은 뜻인데 같은 두 가지 말이 합하여 더욱 긴 마루를 강조하였다.

11. 왕전 사당(王建祠堂)

고려 말에 개성에 나도는 말에 의하면 송악산 소나무에 눈이 싸이고, 궁중의 궁궐 주초돌이 쪼미 먹고, 쇠기둥에 물이 흐르면 고려가 망한다고 하였다.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나자 고려 왕씨(王氏)들은 급히 돌배를 타고 도망치는데 왕건 이하 역대 위패를 띄우고 임진강을 거슬러 지금의 어유지리에 이르렀을 때 배는 가라앉고 위패는 물위에 떠돌았다. 이 때에 그



왕건사당

위패는 강 언덕에 띄웠는데 이것이 지금의 왕건 사당의 유래라 한다. 사당은 연천군에 소속되는 지역으로 연천군에서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곳을 아미강(峨嵋江)이라 하며 행정상으로는 마전(麻田)아미리이다. 또 전하는 바로 왕씨들이 이 곳에서 아미산 달을 바라보며 설음을 달래노라 아미산가(峨嵋山歌)를 지어서 불렀다고 한다.

12. 조선태조(太祖)의 회군(回軍)

이 성계(李成桂)가 아직 등극하기 전 북벌을 하게 되어 개성 가까이에 있는 고개에 이르렀다. 이 때 비바람이 몹시 불어 깃발을 든 군사가 행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발을 갈던 농부가 소를 보고 하는 말이 “이 소가 미련하기가 마치 이 성계 같다”고 하므로 이 성계가 그 농부를 불러서 물어 보았더니 농부가 “이 비바람을 어기고 진군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느냐” 하므로 이 성계가 깨닫고 회군(回軍)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고개를 “피차리 고개”라 한다고 전한다.

이 회군이 위화도 회군과 연관하여 유포된 전설인지도 모르겠다.

13. 용의 머리(龍頭山)

두지리 앞 강에 마치 말이 물을 먹으려고 머리를 물에다 대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한 『용머리』에 대하여는 신앙조에서 기술하였다.

이 용머리 근처에 구두쇠 노인이 살았는데 중이 시주를 청해도 시주를 하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중이 시주를 하러 왔다가 여전히 허탕을 파고 발길을 돌리다가 그 노인에게 이 곳이 명당이니 묘를 쓰면 큰 부자가 된다고 하였다. 구두쇠 노인이 중의 말을 듣고 용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서 묘를 피시다보니 자연히 혈(血)을 뚫게되어 피가 흐르고 또 그 노인도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6·25 이후 이 용머리에 군 막사를 지으면 꼭 재해가 따랐다고 한다. 현재까지 2회의 벼락이 떨어졌다고 한다.

용머리 동쪽으로 유감사 묘가 있는데 묘 자리에서 용머리가 보이므로 보토(保土)를 하였는데 이것이 보토재이다. 묘 가까이에 노루 모양으로 생긴 산이 있는데 장양모퉁이라 하고 그곳 가까이에 범바위(虎岩山)가 있다.

14. 여음탄(如飲灘)

여음탄은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위쪽에 돌거리(石浦)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 쪽은 알아서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이 곳을 여음탄이라 한다. 피뢰군 김 신조가 임진강을 도강할 때도 이곳을 건넌던 것이다.

파평 윤씨 시조 윤 신달이 개성으로 늘로리에서 통군할 때 이 나무를 이용하였다. 윤 신달이 건널 때 강물이 말라서 무사히 건넌다고 하는 전설은 이미 인물편 윤 신달조에서 말하였다.

15. 설 인귀(薛仁貴)



설인귀 비

적성에 설 인귀에 대한 전설이 많다. 이는 설 인귀가 실제 인물이요, 또 적성에서 고구려 원정을 한 장수이므로 자연히 많을 수 밖에 없다. 기록상으로 설인귀사, 설인귀 산신(山神)추대, 설인귀비(몰자비—沒字碑), 클안병의 퇴각 등 역사상의 기록에 대하여는 기술한 바 있다.

설 인귀는 본래 가난하게 지금의 적성면 주월리에서 태어났다. 힘이 장사이므로 남의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지냈다. 설 인귀가 얼마나 힘이 셸던가? 한번은 상산 김씨의 묘를 쓰는데 묘자리에 아람들이 나무가 준비하여 당시의 권세로 각 동리에 배당하여 그 나무를 캐 내도록하였다. 그런데 주월리에 배당된 나무는 설 인귀가 자청하여 자기가 캐내겠다고 하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의 힘센 것은 알고 있는 터라 쾌히 승락하였으나 묘쓸 날이 다가와도 도무지 나무를 캐내지 않고 있었다. 만약 이 나무를 묘 쓰는 전날까지 캐내지 못하면 온 동리가 큰 곤욕을 당하는 것이다. 동리사람이 걱정하고 독촉하니 설 인귀가 술 세독을 준비하라 하고 당일이 되자 술 세독과 돼지 한마리를 먹고는 나무를 뽑아내는데 아람들이 나무를 순식간에 뽑아버렸다고 한다.

설 인귀가 한번은 지금의 울포리 앞 강 석벽에 이르렀더니 석벽이 갈라지면서 용마(龍馬)가 뛰어나오는게 아닌가. 설 인귀가 그 용마를 잡으니 용마는 가만히 있었다. 또 백운리(白雲里)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쟁기에 걸리는 것을 캐어보니 큰 꿩이 나오는데 그 속에 갑옷, 투구, 칼이 들어 있어서 설 인귀 이외에는 입을 사람이 없기로 설 인귀가 차지하였다. 이리하여 용마와 갑옷, 투구, 칼을 얻은 설인귀는 적성 일대를 돌아다니며 훈련을 하였다. 그의 말발굽이 가장 많이 지나간 지금의 마지리(馬智里)는 실은 마제리(馬蹄里)였던 것이다. (이것은 「여지승람」에도 馬蹄里로 기록되었다) 또 설마치 계곡에는 설 인귀가 가지고 놀던 “공기돌”이 6·25 전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현재 감악산 산정에 비가 남아 있는데 글씨가 다 지워져서 알 수가 없으므로 이를 몰자비(沒字碑)라 하는데 이를 현주민들은 “빗돌 대왕”이라 한다. 이 빗돌을 군 작전상 철거를 하였던지 자주 사고가 나서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본래는 것이 없었던 것을 갖을 만들어 써왔

다. 이 빗돌 대왕은 본래 설마치 길가에 세워져 있어 오고가는 사람들이 비 뒤에서 남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변을 자주 보았다고 한다. 또 수령(守令)이 통과할 때도 이곳에 이르면 모두 하마(下馬)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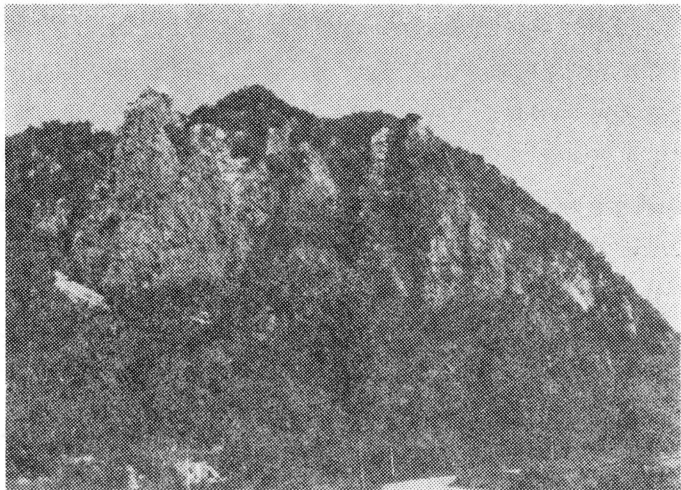
하루는 감악산 7개 부락에 소 가진 사람에게 한결같이 현몽하기를 한 옷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소를 하루 밤 빌려 달라고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마구간의 소를 보았더니 소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으나 소의 온 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빗돌 대왕도 감쪽같이 없어졌다. 후에 알아 보니 그 빗돌 대왕이 감악산 꼭대기에 서 있었다고 한다.

16. 매동화산(武丁山)

파평면 늘노리 파산 서원(坡山書院) 뒷산을 무정산(속명 매동화산)이라 한다. 이 곳에 궁궐을 지으려 하였는데 하루밤 사이에 어디선지 산이 떠내려와서 가로 막았기 때문에 도읍 설치는 중지되고 말았다고 한다.

17. 포수 바위(砲手巖)

웅담리 입구 우측에 기암 괴석이 솟아 높은 산이 되었는데 이를 포수 바위라 한다. 포수가 산패지를 보고 총을 쏘아 마쳤다. 가서 보니 새끼를 낳은 암돼지였기에 새끼들이 죽은 어미 돼지의 젖을 먹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후 포수를 하지 아니하대었고 한다.



18. 웅담(熊潭)

—곰소—

포수 바위

운 관의 첩 웅(熊)은 여진족으로서 운관이 여진족 정벌 때 포로로 데리고 온 여인이다. 운관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운관이 죽자 곧 뒤따라 순사하였는데 그 곳이 지금의 웅담리에 있는 낙화암(落花巖)이다. 이후 곰(熊女)이 빠져 죽은 소(沼) 즉 웅담(熊潭)이 되었다하며 동시곰시(熊潭里)의 명칭이 생겼다. 곰시는 곰소가 변하여 된 명칭이다.

19. 노패(盧牌)

천현면 웅담 3리 옛날 노희립(盧希立) 감역(監役)이 잔치를 베풀고 빈패(賓牌)를 주었으므로 생긴 이름이다.

熊潭之南 盧監役希立 設慶宴 立速賓牌 故名

20. 오동나무 골

파평산 서북쪽 산록 일대를 오동나무골이라 하는데 파평산 꼭대기를 줄기로 한 잎이 죽 산 아래에 덮여져서 마치 오동나무 잎 같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이 오동나무 골에 명당이 있다 하여 많은 지사(地師)들이 찾아 들었다고 한다.

21. 혜음령 주변의 전설

○ 진따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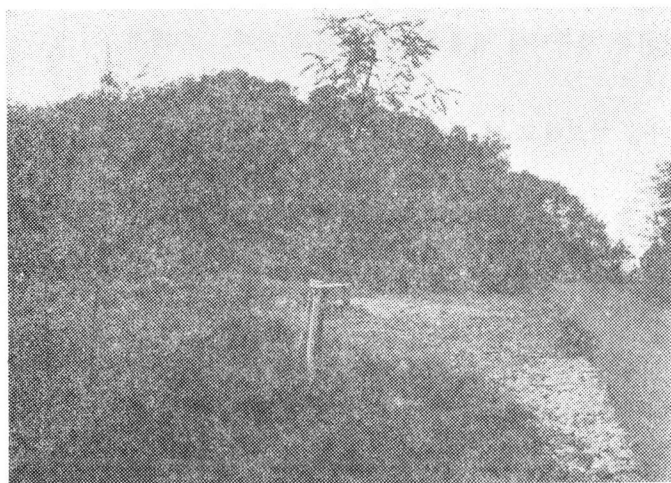
혜음령에서 광탄 쪽으로 진따백이(진지동)가 있다. 이 여송이가 진을 쳤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지금도 이 동리에서는 진때(장대 위에 기러기 모양의 나무 조각을 달았다)를 세우고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 되패고개

백석면 영장리(혜음령 동쪽편)에 되패고개가 있는데 이 여송이가 “되려 패했다”라는 뜻에서 명명된 것이라고 한다.

○ 혜음령의 지도

이 항복이 평양에서 이 여송에게 지도를 건네어 주었는데 그 지도에 혜음령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지인줄 알고 가다가 고개가 있어서 전략에 차질이 생겨 패전하였다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 여송의 아우 이 여백, 이 여매가 죽었다. 따라서 이 여송의 콧대를 꺾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황당무



혜 음 령

개하나 채택하였다. 여송에게 지도를 준 것은 유성용이었고 그도 평양 지도였으며 또 이 여송의 아우 이여백, 이 여백은 한강 도강에도 참여한 기록이 있으니 이 때 죽지 않았던 것이다.

또 전설에 해음령 밑에 죽골이 있는데 이 여백, 이 여백이 이곳에서 죽어서 후에 이 여송이 시체를 찾는데 동생이 아닌 시체는 집었다가 던졌는데 주변 산으로 떨어져 온산에 시체가 늘비하였다고 한다.

○ 해음령의 도둑

해음령에 도둑이 많았음은 「여지승람」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이 곳 전설에 도적 두 사람이 많은 장물을 해음령 으속한데다 흠쳐다 놓고 서로 분배를 하는데 각자는 마음 속으로 독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한 도적이 술을 한잔 나눠 먹고 분배하자 라고 술을 사려하산하였다. 남아 있는 도적은 저놈이 돌아오면 죽이고 혼자 장물을 차지하려고 마음 먹고 칼을 준비하여 숲속에 숨었다가 올라올 때 죽이겠다고 생각하였고 술을 받으려 간 도적은 저놈을 죽이겠다. 마음 먹고 술에다 독약을 타 가지고 온 것이다. 이리하여 두 도적은 모두 죽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남아 있는데 근원은 해음령에서였다.

이상 해음령의 전설은 오늘날까지 남았으나 해음사, 해음원 등 유적은 없어지고 그 터와 주초는 지금도 남아 있다. 그리고 벽제관은 임진 왜란 당시는 바로 해음령 밑에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벽제관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해음령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록에는 해음령 싸움이라 한 것이 많다.

22. 용미리의 석불

용미리에 석불이 왜 세워졌느냐 하는 전설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옛날 이 곳에 부자가 살았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매우 많았다. 그러므로 손님 치닥거리에 꼴치가 아픈 며느리가 시주를 요구하는 중에게 손님이 오지 않는 방법을 물었더니 석불을 세우면 된다고 하기에 시아버지를 설득하여 석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후 그 부자는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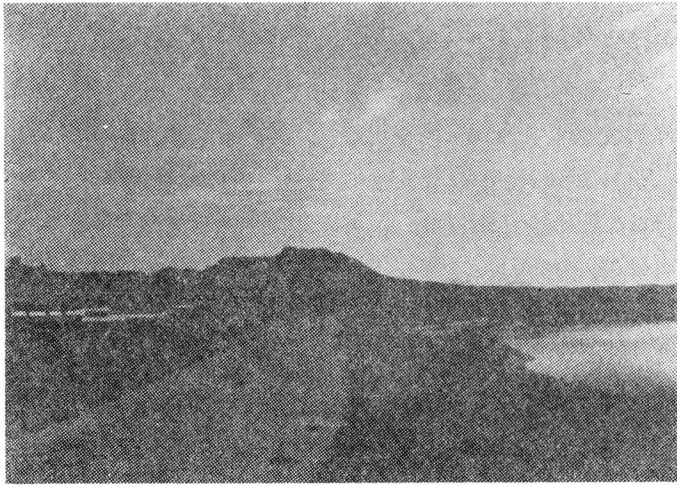
둘째, 전설은 고려 공민왕이 왕자를 얻으려고 이 곳에 미륵불을 세웠다고도 한다.

○ 분수원(汾水院)

임진강과 한강의 분수령이 되므로 물을 나누는 곳이라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23. 봉서산(鳳棲山)

봉서산 꼭대기에 우물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장사 우물이라 하는데 군사 시설로 메워졌고 하나는 전대 우물이라 하는데 현재 약수로 주민이 즐겨 마시고 있다. 그런데 이 전대 우물은 수량도 많고 하여 주내읍민의상수도로서 이용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대 우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장병들이 이 우물에서 세수를 하면 파주리에 있는 대야(대우)우물로



봉 서 산

나온다고 한다. 권율장군이 행주 산성에서 이 봉서산(파주산성)으로 행진을 옮기고 이 우물을 여러 장병들이 사용하였던 것이다.

또 이 산에는 공기 바위(장사 바위)라하여 공기를 몇 개 포개놓은 듯한 바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허무러져서 없어졌다고 한다. 또 용마 바위가 있다. 즉 장사 우물, 장사 바위, 용마 발자욱 등 이름으로 보아

옛날 어떤 장수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의 전설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24. 용주골

용주골은 벌말이라고 한다. 본래는 용지(龍池)의 골이었다. 이 용지는 지금의 동리 가운데 있었다. 따라서 용지골이 변하여 용주골이 된 것이다. 주내의 팔경(八景)에 용지어화(龍池魚火)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즉 용지에서 밤 고기잡는 불이 그의 일경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부르는 용주골은 벌말(벌판에 있어 벌말)이 옳으며 파평윤씨 사당에있는 안동리가 용지골(龍池洞)이다. 이것이 6·25 사변 이후 벌말이 기지촌이 되면서 용지골을 용주골로 변하여진 것이며 龍池는 벌말아닌 용지골에 있었다.

25. 공수천(供水泉—공수물)

월릉면 영태리에 겨우 세 가구가 사는 동리가 있었으니 그 동명을 공수물이라 한다. 인조 반정(仁祖反正) 때 이 서(李曙) 등 동지들이 모여서 장단으로부터 서울로 쳐 들어갈 때 낙하도(洛河渡)를 건너 옥돌 내를 지나 이 곳 공수물에 이르러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갔는데 이 우물을 공수물(供水泉)이라 하였고 또 그 마을을 공수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공수물은 그 후 폐동이 되어 없어지고 그 우물도 경지 정리로 지금은 논 가운데 묻히고 말았다. 월릉에서 영태리로 오는 육교를 지나 약 100m 쯤 가면 우편 논 가운데 있는 우물이 바로 공수물이다.

月籠面純祥里(英太里) 有一井 仁祖反正時 會集同志 自長湍入京 飲此井水 故名

〈坡州郡誌〉

26. 삼천 도둑골

월룡산 뒤편에 소쿠리 안 같이 생긴 골짜기를 삼천 도둑골이라 한다. 아마 3천명의 도둑이 몰려 살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인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임 껍정(林巨正)이 파주, 해주 일대를 무대로 도둑 활동을 하다 구월산(九月山)에서 잡혀 죽었는데 이 임 껍정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도 되나 이에 대한 구전이나 전설은 전혀 없다. 임 껍정이 혜음령, 감악산에서 활거하였다는 전설은 남아 있으니 생각해 볼 문제이다.

27. 낙하(洛河)

임진강을 임진면 덕진으로부터 하류를 낙하(洛河)라 한다. 이 곳에 낙하도(洛河渡—낙하나루)가 있어 임진나루와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나루터였다. 낙하정은 지금의 반구정의 옛 이름이다.

28. 문산포(汝山浦)

사목리가 옛날 중요한 포구였다가 임진강의 강류의 변동으로 포구가 차츰 하류로 이동하여 지금의 문산 입구가 포구로 되었다. 이 곳을 문산포라 하였다. 경의선(京義線) 철도가 부설되자 문산이 현장소로 차츰 이전되었다. 문산포는 수운(水運)의 중심지였다. 황해도, 고랑포 연천 등지에서 조기 배와 농산물이 황포 뚝대에 실려 집결하였으므로 이 곳은 항상 황포뚝대 가 끝일 사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 곳에 집결된 문산이 물물교환의 대시장을 형성하였다.

29. 마정(馬井)

마정은 말우물이다. 장수산(將帥山)에서 장수가 말 우물을 먹고 태어나서 7일만에 시령(선반) 위에 올라 앉았다고 한다. 이 장수가 말을 타고 마은동에 숨어서 마은동이라 한다고 전한다.



30. 독산(秃山)

문산의 뒷산 지금의 동 중학교 자리의 산을 독산이라 한다. 산에 초목이 없이 벌거벗은 산이 었기에 독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문 산 포

山無草木 故名 今汶山

〈坡州郡誌〉

31. 아동리(冶洞里)

아동리를 풀무 골이라고 한다. 풀무는 대장간에서 쇠를 다루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이다. 이 곳에 풀무가 있었다 하여 풀무골이라 한다. 풀무골은 금촌에서 서북쪽으로 약 2 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이 곳에 옛부터 내려온 모루돌이 있었다. 이 모루돌이란 대장간에서 연장을 베를 때 바탕으로 쓰이는 돌로 넓이 6척의 사각모양의 돌이며 두께는 2척이다. 농부들이 5~6인 정도 여기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기에 알맞았다. 이 돌이 경의선(京義線) 복선공사 때 깨여 사용되고 지금은 없어졌다. 모루돌, 풀무, 대장간의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모루돌 있는 곳에 풀무가 있고 풀무 있는 곳에 대장간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풀무 골은 모루돌에 유래된 것이라 한다.

32. 금촌읍의 동명

금촌읍의 동명을 살펴볼 때 옛 현 또는 군의 소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리(衙洞里)는 현 비향장자리로 관아(官衙) 즉 동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현 군청 일대의 동명이 마무리(馬武里) 즉 마무동이며 지금의 아골(衙洞)을 옥명터(옥터)라 하여, 새남터 자리인 것이다. 새남터는 사형장을 말한다. 이렇 듯 아골, 마무리, 옥터 등 옛 명칭을 볼 때 행정 소재지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33. 임진 나루의 뱃사공

임진 나루는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뱃사공은 사람을 잘 알아보기로 유명하였다. 사람의 신분을 귀신같이 알아 내므로 한 뱃사공이 과연 그렇게 잘 알아보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여 보기로 하였다.

뱃사공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의관을 완전히 양반으로 변장하였다. 갓이며 도포며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 일체를 양반으로 꾸민 다음 임진 나루 뱃사공을 찾아갔다.

변장 뱃사공 : 여보게 배 건지게

임진 나루 사공 : 부지런히 배를 대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누구 보고 반말이여—

변장 뱃사공 : 이 늙 갓히 뉘 앞에서 행패냐.

임진 나루 뱃사공 : 너는 아무리 양반인체 해도 나와 같은 뱃놈에 불과하다.

변장 뱃사공 : 네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임진 나루 뱃사공 : 너의 수염이 한 쪽으로 꾸부러졌고 고개가 한 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노를 젓느라 고개가 돌아간 것이고 강바람에 수염이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 너는 나와 같은 뱃놈이야.

34. 오산리 망골의 산신제

조리면 오산리(梧山里) 망골에는 지금도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있는데 이 곳 산신은 특히 영험하여 어느 날 백정 한 사람이 망태기 속에 산신제에 쓸 고기를 훔쳐 넣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도망할 수가 없어서 가진 애를 쓰다가 훔친 그 고기를 내 놓으니 발이 저절로 떨어졌다고 한다. 또 나무꾼이 이 산신당 근처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역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진 고생 끝에 그 나무를 내려 놓았더니 발이 그제서야 떨어졌다고 한다.

35. 금촌(金村)

구한국 말에서 일제 초까지 아동면은(지금의 금촌읍) 쇠재(金陵), 새꽃(新花), 새말(金村) 풀무골(治洞), 검산(檢山), 맥금(陌金) 등 6개리로 형성되어 각동리 마다 70~80호 정도의 호수를 가졌었다. 경의선(京義線) 철도를 부설하기 전에는 금촌이 논으로 되어 7~8호의 농가가 산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명도 무네미라 하였고 봉일천으로 통하는 고개를 무네미 고개라 하였다. 옛날 이 고개가 분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무네미의 물이 새말에서 막혀서 돌아가는데 물이 막혔다 하여 막은 골이라 하였다.

경의선 철도 부설 당시 새말은 30~40호의 부락이고 현 금촌역은 논이었다. 일본인이 역명을 정하고자 가까이에 있는 새말(新村) 을가르치면서 무슨 동리냐고 물었을 때 어느 촌로가 새 말이라 대답하였더니 일인이 듣기를 쇠 말로 들었다. 쇠 말은 금촌(金村)이다. 따라서 금촌으로 역명이 정해지고 역이 생기다 보니 인구가 집중되어 시가지를 이루어 금촌(金村)이 된 것이다.

36. 공숙공(恭肅公—沈滄)의 묘소

1493년 본군 광탄면 마장리에 묘소를 묘쳤는데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연산군의 생모 윤비의 축출에 관련되어 천양지화(泉讓之禍)를 당하고 1504년 묘소를 월릉면 영태리로 이장하였다. 이 때 이 묘자리는 이미 공숙공의 부인의 아버지 묘자리로 결정되어 이미 묘자리를 파서 광을 만들었는데 부인 김씨가 보니 묘자리가 아주 좋아서 밤에 몰래 광 속에 물을 퍼다 부었다고 한다. 이튿날 장례를 피시려 하니 광 속에 물이 나므로 흉지(凶地)라 하여 버리고 다른 곳으로 묘자리를 정했다고 한다. 그 후 김씨 부인이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버려진 그 묘자리를 얻어서 남편 공숙공을 묘쳤다고 한다. 전하기를 이 묘자리를 등하불명(燈下不明)자리라 한다.

37. 수레 넘어 고개(車踰嶺)

법원리 갈곡리에서 가래비쪽으로 넘는 고개를 수레 넘어 고개라 하며 이것을 한자 표기로

차유령(車嶺嶺)이라 하는데 실은 쉼 넘어 고개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이곳이 험암하여 도적의 소굴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적은 수자로는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최소한 쉼명(50명) 이상이 되어야 넘을 수 있었다 한다. 그러므로 법원리쪽에서도 쉼명(50명), 가래비 쪽에서도 쉼명(50명)이 뭉쳐서 넘었다고 한다. 따라서 재 이름이 쉼 넘어 고개라 하였던 것인데 그 후 차츰 변하여 쉼 넘어가 수에 넘어로 되고 또 차유령(車嶺嶺)으로 변한 것이라 한다.

38. 퇴박 고개(더파기 고개)

퇴박 고개는 고양군 송탄에서(보광사쪽) 양주군 백석면(白石面) 영장리(靈場里)에 있는 영조의 생모 숙빈(淑嬪) 최씨의 묘소인 소영원(昭寧園)으로 가는 고개이다. 영조께서는 이 고개를 넘어서 소영원에 참배를 자주 올렸다. 그런데 이 고개는 가파르다. 그래서 참배에 여간 노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영조께서 이 고개를 좀 더 파서 낮추라 명령하였다. 즉 “더 파라” 즉 더 파기 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이 더 파기 고개가 변해서 퇴박 고개가 된 것이다.

39. 덕암산 가재 골의 채동지(蔡同志)

조리면 덕암산 가재골에 채성을 가진 장사가 살았는데 별호를 동지(同志)라고 할 뿐 이름은 없었다. 힘은 장사나 집도 없고 처자도 없이 떠돌면서 문전 결식을 하는데 한 끼 한말 밥을 먹어야 하므로 지게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다가 가재골 맑은 물에서 식사를 하였다. 힘이 세고 미련하여 사람들이 밧줄로 머리를 동여매고 가운데다 썰기를 넣어 비틀어도 또 인두로 지져도 하나도 아픈 표정이 없이 손으로 슬그머니 밀어버리는 것이다. 집이 없기에 연중 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살았다. 겨울에 눈이 오면 채동지가 자는 주위는 땃방석만 하게 눈이 녹아 없어졌다고 한다.

40. 봉일천(奉日川)의 명칭

봉일천은 본래 공능이라 했다. 어느 때 인지는 몰라도 공능이 봉일천으로 바뀌었는데 이 공능천이 해마다 범람하여 피해가 많았다. 상류에서 비가 오면 가만히 있다가도 물난리를 당하기 일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곳은 해마다 인명 피해가 많았으므로 물(川)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또 태양에 대한 관념은 옛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숭배 사상이었으므로 첫째는 해 둘째는 물(내)을 받들어야 이 곳은 잘 산다고 하여 이름이 해와 내를 받드는 곳 즉 봉일천(奉日川)이 되었다고 한다.

41. 와동(瓦洞)

와동은 기와집이 많아서 비가 와도 우산이 필요 없었다 한다. 처마 밑을 가다보면 비를 맞지 않았던 것이다. 부자가 많아서 기와집이 많았던 관계로 기와골 곧 와동(瓦洞)이라 하였다

한다. 또 “왜때이” “왜똥”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왜는 기와를 뚫은 동, 꿀을 땀이는 땅으로 해석할 때 기와꿀, 기와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기와 꿀이 있었던 관계로 와동이래 하였다고 한다.

42. 썩은 뱀이

썩은 뱀이는 썩은 밤 즉 휴울(朽栗)을 말한 것이다. 이 곳에 밤나무가 많아 밤이 떨어져도 줍는 사람이 없고 따라서 밤이 썩는다 하여 썩은 밤(朽栗里)이라 한 것인데 변하여 “썩은뱀이”된 것이다 한다.

43. 교하(交河)

교하의 지명은 글자 그대로 임진강과 한강이 마주치는 곳이라는 뜻에서 교하(交河)라 한 것이다.

44. 반석(盤石)



반 석

반석은 임진강과 한강이 마주치는 곳에 있었던 포구이다. 지금은 강심(江心)이 휴전선이 되어 있어 배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폐허가 되었다.

반석은 구들장 등 반석이 많이 생산되므로 명명된 지명인 것이다. 서해에서 오는 배와 임진강을 오가는 배와 한강을 오르내리는 배가 반드시 이 곳에 기항하여 쉬었다 가야한다. 그것은 이 반석에 이르면 물이

바뀌어진다. 썰물 때 이르면 한강이나 임진강으로 갈 배는 이 반석에서 다음 밀물을 기다렸다가 일제히 출항한다. 그러므로 양강의 배가 반드시 이 곳에 기항하기 마련이므로 자연히 이 곳은 고기 배의 집산지였고 양곡의 집산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풍부하여 “제2의 인천”이라 불러 경기가 아주 좋았던 곳이다.

왜정 때 일인들이 양곡의 통제를 하여 식량난에 허덕일 때도 이 곳 만은 쌀이 넉넉하였으니 그 것은 장명산(長命山)에서 생산된 석회석을 서울로 운반하여 불합격이 된 돌을 도루 싣고 돌아올 때 배 밑에다 공출한 쌀을 감추어 돌아와서 나누어 먹었기 때문이다.

또 이 곳에 진달래를 집단으로 재배하여 진달래 발을 만들었기에 경치가 좋았고 각종 행락

소가 늘어나서 관광지로 변모되기도 한 곳이다.

45. 검단사(黔丹寺)

검단사는 교하 검단산에 있는 고찰로 신라 때 검단 도사가 건립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검단사는 본시 대왕봉(大王峰) 위에 있었던 것을 현 검단산으로 이전한 것이라 한다.

검단사에 검단 도사의 작품이라 전하는 석불(石佛)이 있었는데 검단사가 대왕봉에서 검단산으로 옮긴 후에도 석불은 그 자리에 있었다. 6·25 때 해병대에 의하여 금산리 보현암(普賢菴)으로 이전되었다. 보현암은 79년 정부에서 요사(妖寺) 철거령으로 철거되었으나 석불은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석불은 등신좌상(等身坐像)으로 1300년 가까운 세월을 흐르는 동안 절을 잃고 노천에서 홀로 서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존속된 것이다.

검단사에는 높이 7~8촌의 금부처가 현존하고 있다. 이 금부처는 황해도 개풍군 죽면에 사는 해적들에게 도난당했는데 이 해적이 팔려고 하였으나 사고가 연발하여 팔지 못하고 결국 검단사에 반납하고 말았다. 그 동안 검단사에서는 도난맞은 것으로 단념하고 다시 금부처 모조품을 만들어 안치하였으므로 지금 이 절에는 두 개의 금부처가 있는 것이다.

또 검단 도사는 아침 저녁으로 김포를 내왕하면서 불씨를 구해 왔다 한다. 김포군 검단면은 검단 도사와 관계가 있는 지명이 아닌가 한다.

46. 찬 우물(冷井院)

금촌읍 검산 2리 월룡산 아래에 있다. 찬우물이 났으므로 지명이 찬우물이 되었는데 한자 표기를 하다 보니 냉정(冷井)이 된 것이요, 이 곳이 원(院)이므로 냉정원(冷井院)이 된 것이다. 이 찬 우물에 전해 오는 전설로 교하로 장릉을 이전할 때 묘자리를 파는데 광중에 물이 피여 지관이 큰 죄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느 신인(神人)이 이 냉정을 가르키며 파라 하였다. 과연 이 곳을 파더니 찬 우물이 나오는 동시 장릉의 광중에 피인 물은 말라 버렸다 한다.

47. 관모봉(官帽峰)

탄현면 문지리(文智里)에 있는 산으로 개성 쪽을 향해서 고개 숙인 듯 구부러져 있다. 조선이 건국하여 한양에 도읍하였으나 이 산은 여전히 개성을 보고 굽어 있으므로 자연히 역적봉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다.

48. 화석정(花石亭)의 인삼 밭

화석정에 이 이(李珥) 율곡이 공부하고 있을 때 율곡의 눈에 바로 가차이에 있는 임진 나루터 근처에 제법 넓은 인삼 밭이 보였다 한다. 그런데 이 인삼 밭이 율곡이 조정에서 정사에 물두하다가 와서 보면 없었다 한다. 그 후 율곡이 벼슬을 그만두고 화석정으로 돌아와 수양

하고 있으니 다시 보였다 한다.

49. 치마 바위

탄현면 금산리에 보현산은 본래 옥녀봉(玉女峰)이라 하였다. 이 산낙맥 대동리 강변에 선녀 세 사람이 하강하여 바위 위에 치마를 벗어 놓고 목욕을 하였으므로 치마 바위라 한다.

50. 질오목(叱吾目)

장릉(長陵) 이장으로 박 중손(朴仲孫)의 묘소가 헐리고 다른 묘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지관이 묘자리를 찾으려 이 곳 질오목(질우목)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까마귀가 까옥 까옥하고 울어댔다. 지관이 그 까마귀 소리가 이상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묘자리를 지나쳐 왔다. 돌아서서 까마귀 우는 곳으로 가서 보니 그 때 겨울이라 눈이 온 천하를 덮었는데도 한 곳은 눈이 녹아 있었다. 보니 과연 좋은 묘자리였다. 따라서 까마귀 소리를 듣고 돌아서던 자리를 질오목(叱吾目)이라 명명하였다. 이것은 “내 눈을 꾸짖는다” 하는 뜻으로 묘자리를 찾지 못한 내 눈을 꾸짖는다 라는 뜻이다. 또 까마귀가 울던 곳을 오고미(烏告美)라 하였는데 이것은 까마귀가 알렸다 하는 뜻이다.

또 질오목과 오고미의 사이에 “진말모롱이”, “선모루”, “대종모통이” 등의 지명이 있는데 그 지관이 질오목까지 짓밟아 왔다 하여 진말 모통이, 섰다 하여 선 모루, 대종없이 왔다 하여 대종 모통이등 지명이 생겼다 한다.

51. 논 바위

본 바위는 사방 2m 크기의 바위로 대동리와 금산리 사이에 있다. 이 바위가 쓰러져 있으면 대동리의 여자들이 음란하여 사고가 잦아지고 이 바위가 일어서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금산리에 과부가 많이 생겨나서 대동리로 간다 하여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므로 양 부락에서는 서로 일으키면 쓰러트리고 쓰러지면 일으키고 하는 작란이 오래토록 반복되어 왔다.

50년 전에 할 수 없이 땅을 파고 이 바위를 묻었다 한다. 지금 이 바위는 지상에 약간 나와서 보인다.

52. 삭령 바위(朔寧岩)

적성면 자작리 임진강 건너편 강가에 큰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이를 삭령 바위라 한다. 어느 해 큰 홍수로 삭령에서 이 바위가 떠나려 왔다 한다. 따라서 삭령 군수가 바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해마다 바위 값으로 도조를 주변 주민들에게 받아 갔다 한다.